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함께 가면 행복한 걸음 동무 운영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5일간 남원시 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함께 가면 행복한 걸음 동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걸음 동무는 동행의 순수한 우리말로, 같은 길을 가는 친구라는 의미에 이웃사랑과 봉사활동을 동행하는 벗이라는 의미를 더해 자원봉사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족방, 부채, 열쇠고리 등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3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농어촌진흥공사(이하 농진공) 외 장애인복지기관 4개소와 '생활환경가족봉사단' 단체가 참여, 식목일을 기념해 다육이 화분을 만들고 완성품을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은주 시민소통실장은 "장애우분들이 지역주민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산면 어부바·길보른, 주민한마당 축제 열어

4일 금산면 제1회 금산면 행복꽃이 피었습니다 주민 한마당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금산면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단장 홍성열)과 길보른복지관의 주관으로 민·관협력 기반 축제 한마당 자리이다. 이날 금산면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하여 문화공연, 노래잔치, 풍선 제공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경로한마당 축제의 장이 되었다.

서효연 금산면장은 "이렇게 흥겨운 잔치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으며, 오늘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기관 및 단체에 감사함"을 전했다.

홍성열 어부바 단장은 "금산면 주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한마음으로 마련한 자리로 많은 분들이 이웃의 정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리산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남원 지리산농협은 지난달 31일, 임직원, 인원변장, 산내 면장 이영민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 자녀 27명의 대학교 신입생에게 2,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원 지리산농협(조합장 정재환)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538명에게 총 4억2,300만원을 지원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지리산농협 농업인 조합원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농업인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해왔다.

한편 정재환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리산농협 조합원 자녀에게 대학입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2023년 유물구입 추진

진안군이 운영하는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진안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자료 및 옛 사진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유물구입을 추진한다.

이번 구입대상 유물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물이나 진안 관련 고지도나 고문헌, 고문서를 비롯하여 마이산 인삼·홍삼과 관련된 유물, 민속품 등으로 진안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유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진안의 문화유산이나 경관·풍속 등을 1900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자료도 구입 대상 유물에 포함된다.

유물 유상양여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진안군과 진안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입 대상 유물과 가격은 전문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진안=유태만 기자

'최상의 의료서비스 신뢰받는 병원'

전북대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현판식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4주기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유희철 병원장과 이혜숙 상임감사, 이식 진료부원장 박지현 공공부원장 등 병원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인증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인증유효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다.

유희철 병원장은 "이번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은 우리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3주년 기념 행사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콜센터) 운영 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예수병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콜센터는 '진료예약, 편리한 콜백(Call Back) 서비스' 등 다양하고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콜센터 10명 중 장애인 직원이 9명이며 예수병원은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예수병원을 목표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지속해서 채용하고 있다.

예수병원이 설립한 자회사인 (주)피एम에스에서 장애인 직원 9명을 파견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과 직무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 예수병원은 최근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장애인헌신사부인과 개소를 통해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먼저 다가가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 등 여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



무료 진단과 내원 시 편리한 진료로 확보를 위한 배려 엘리베이터 설치 등 환자 중심 및 의료시설과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충식 병원장은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이란 의미 있는 성과와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통체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수병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GTEP사업단, 16기 수료식서 산업부 장관상 등 수상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단장 김민호)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GTEP 제16기 수료식 및 제17기 발대식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시상식에서 16기 신준수 학생(농업경제학과)은 사업단 활동과 협력업체의 수출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16기 한희정 학생(무역학과)은 전자상거래 경진대회에서의 리더십 발휘 및 전북대 GTEP 전자상거래 플랫폼 '일리버바'의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틀을 다진 점을 인정받아 한국무역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김경아(독일학과), 김시연(무역학과), 김태림(무역학과), 남현(스페인중남미학과), 박민주(무역학과), 서운영(무역학과), 이경선(일본학과), 이서현(일본학과), 최지혜(무역학과), 한희정(무역학과), 허정우(무역학과) 학생 11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증



을 획득했다.

김민호 단장은 "우리 학생들이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통·번역직업, 해외박람회 참가, 전자상거래 활동, 등을 열정적으로 해줬기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문성 기자



법무보호복지공단-도로교통공단, 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지역본부장 기용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지원을 통한 원활한 면허 자격 취득, 관련 직종 취업 연계로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공단·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의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기용걸 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업훈련 연계 지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노인복지관, 지역사회네트워크 문화탐방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흥교)은 4일 노인복지관 어르신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 일원에서 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문화탐방은 경제적·신체적·물리적 제약 등으로 관광 향유에서 소외되고 있는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기간 친목 도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무주는 산골지역 특성상 바다 여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바다를 볼 수 있는 부산으로 선정되었다. 해변열차를 타고 부산 지역의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자갈치시장을 관람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하였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이흥교 관장은 "문화탐방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무주군,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 재연 전시회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 재연을 담은 사진전시회가 무주군 일원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문화원이 지난 2022 무주년빛불축제 기간 중에 실시한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 재연 시 촬영한 사진 40여점을 무주중학교 등 6개 학교를 찾아가 순회 전시한다.

2019년부터 역사적 사실을 재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역사를 학교 학생들에게 알려 자긍심을 심어주고,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시는 무주고(4.3~4.7)를 시작으로 안성고(4.10~4.14), 적상중(5.1~5.4), 무주중(5.1~5.4), 설천중·고(5.8~5.12), 안성중(5.15~5.19)순으로 진행된다.

전시회를 관람한 학생들은 "우리 고장에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재연 시에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 우리 선조들의 적상산 사고 이안 광경을 직접 보겠다"라고 말했다.

무주문화원 맹강산 원장은 "무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적상산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를 심어줬다"라며 "2023년 제27회 무주년빛불축제 시에는 재연에 필요한 학술용역을 실시해 역사적 고증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역사교육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무주=전문성 기자

새만금개발청, 식목일 새만금 나무 심기 행사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새만금개발청은 4일 새만금 남북도로 생태자전거 휠터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새만금개발청 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이팝나무 50주(H3.0m)와 조형 해송 2주(H3.5m)를 식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부터 동서도로변에 이팝나무와 곰솔 등 조경수 27만여 주를 심는 등의 녹화사업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녹색 도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은 "작년에 21개사 1조1852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를 이뤄냈으며, 올해는 이미 1조8000억 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만금에 기업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의 빠른 발전 속도에 발맞춰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린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원광대 약학대 교수·학부생 해외 구호 성금 동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성금 144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구호성금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원광대 약학대학 학생회에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모금을 시작했으며, 약 10일 간 약학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아 원광대 약사대학(학생회장 윤서현)이 지난달 31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를 방문해 전달했다.

윤서현 학생회장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학생회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약학과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은 성금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지 이재민 구호활동 후원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 계좌 송금(우리은행 1005-003-305785(예금주 : 대한적십자사)), ARS(060-700-8179) 등을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재민 구호 활동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